

##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 프로그램 (Minor Program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개요

21세기 창의융합시대 경제성장의 엔진, 사회진보의 견인차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첨단 과학기술 지식의 정책적 활용과 함의에 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논문의 양적 성과로는 세계 4~5위를 기록하나 질적 수준으로는 여전히 뒤처지는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이공계 기피현상, 빈약한 기초과학/원천기술,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성과관리, 창의적 과학교육의 부재, 취약한 신기술 위험관리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래 과학한국을 이끌어갈 KAIST 학생들은 과학기술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과 추동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프로그램은 향후 국가 과학기술정책 형성의 핵심적 위치에서 과학기술 지도자로서 활약할 인재들이 과학기술 경영 및 관리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거시적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그 사회적 함의를 고민하며 창의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키우는 곳이다.